

##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몸소 준공레프를 끊으시었다

주체비료생산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식이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월 1일에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준공식장에 나오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한 령도로 주체적인 비료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변을 안아오시고 자립경제강화를 위한 혁명적대진군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준공사를 하였다.

그는 순천린비료공장의 준공이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정면돌파전을 과감히 벌려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이룩하려는 영웅적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과 우리 국가의 막강한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는 일대 경사로 된다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농업생산에서 절실히 필요한 고농도린안비료를 대량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현대적으로 크게 건설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고 주체화, 현대화의 요구가 철저히 구현된 화학공업부분의 본보기공장, 자동화, 호를순화를 실현한 로력절약형기업체로 일떠세우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을 체질

화한 건설자, 과학자들과 인민군인들이 충성의 돌격전, 치열한 철야전을 벌려 방대한 공사과제를 앞당겨 수행하고 린비료공업의 주체화실현에서 나서는 수많은 과학기술문제들을 우리 식으로 해결하며 완공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한데 대하여 말하였다.

우리 나라 비료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제전진전반을 추동하는 순천린비료공장건설의 완공은 우리 당의 정면돌파사상, 자력부강, 자력번영사상의 위대한 승리며 당의 령도따라 자력강생의 기치높이 역세계 나아갈 때 우리의 투쟁목표들을 얼마든지 점령할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정면돌파전의 투쟁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자력강생의 훌륭한 성과들을 계속 이룩하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필승의 신심드높이 힘차게 나아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준공레프를 끊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건설자들과 군중에게 따듯이 손저어 답례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완공된 공장의 생산공정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며 원료가공공정, 황린생산공정, 린안생산공정, 제품포장공정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훌륭히 일떠선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나큰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현대적인 린비료공장이 일떠섰다는 보고를 받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제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마음놓고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점령하는데 전심할수 있게 되였다고, 순천린비료공장은 당정책절대신봉자들이 군민일치의 단결된 힘으로 창조한 자랑스러운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전체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김책공업종합

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이 련관단위들과 협동하여 순천린비료공장 통합생산체계를 훌륭히 구축해놓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인재는 나라의 큰 자원이고 발전의 동력이라고, 인재육성은 우리 당이 가장 중시하는 정책적문제이라고 거듭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순천린비료공장의 완공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이후 이룩한 첫 성과이며 우리 나라 화학공업을 한계단 도약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 소중한 성과를 불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역에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불길이 더욱 거세차게 타오르도록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린비료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원료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데 대한 문제, 통합생산체계를 더욱 완비하며 생산공정을 안정하게 운영할데 대한 문제, 환경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릴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비료공장들을 전반적으로 개건현대화하며 새로운 화학공업기지들을 더 많이 건설하는것을 비롯하여 우리의 화학공업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정확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건설자들이 우리의 원료, 우리의 기술에 의거하는 새로운 공업을 창설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공격전을 과감하게 벌려나감으로써 우리 당의 위대한 정면돌파전사상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본사기자





# 또 하나의 만년재부

에로부터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 일러왔다. 농사를 잘 지어야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풀수 있고 공화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칠 수 있다. 때문에 공화국에서 농업부문은 경제건설의 주타격방향으로 중시되고있다. 자체의 힘으로 하루빨리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모든 쌀처럼 보인다고 하시었다.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경제건설을 위하여는 사회주의협동농장을 찾아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었다. 어느때인가 그이께서는 한 농장에서 새로 강병이와 발버종자를 육성해낸것을 아시고 그 농장을 찾으시었다. 팔복같은 강병이와 총알같이 여운 벼이삭을 비롯한 농작물들을 보신 그이께서는 정말 희한하다고,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고 하시면서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새 강병이, 발버종자를 육성해낸것이 너무나 기쁘시어 새 품종의 강병이이름을 《평죽9》이라고 친히 명명해주시었다. 새 품종의 종자들이 황금이삭으로 주렁져 인민들의 밥그릇에 오르라고이다.

현것을 보시면서 그이께서는 구조의 내용이 참 좋다고, 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우리 나라를 쌀이 남아돌아가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인민들의 식량문제 해결,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협동농장을 찾아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었다. 어느때인가 그이께서는 한 농장에서 새로 강병이와 발버종자를 육성해낸것을 아시고 그 농장을 찾으시었다. 팔복같은 강병이와 총알같이 여운 벼이삭을 비롯한 농작물들을 보신 그이께서는 정말 희한하다고,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고 하시면서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새 강병이, 발버종자를 육성해낸것이 너무나 기쁘시어 새 품종의 강병이이름을 《평죽9》이라고 친히 명명해주시었다. 새 품종의 종자들이 황금이삭으로 주렁져 인민들의 밥그릇에 오르라고이다.

농업부문을 하나의 전선이라고 한다면 비료는 그 전선에 보장되는 탄약과 같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업전선의 병기창으로 될 린비료공장을 크게 건설하실 결심을 하시고 수십차례 걸쳐 순천린비료공장건설의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설계형성안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었다. 올해 첫 현지지도로 순천린비료공장건설현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 로력에 의거하여 고농도린안비료를 대량생산할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고 건설자들을 고무하시었다. 농업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린비료를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로 생산할수 있는 토대를 갖추어놓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혈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농업전선의 병기창이 훌륭히 일떠서게 되었다.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또 하나의 만년재부로 일떠선 순천린비료공장은 주체화,

현대화의 요구가 철저히 구현되고 생산에서도 건축물에서도 생태환경보호에서도 완벽한 나라의 화학공업부문의 본보기, 표준공장이다.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준공패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마음놓고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점령하는데 전심할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었다. 비료생산부문에서 린함량이 높고 자체로 생산할수 있는 하능도로 전환하고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공화국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농업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고농도린안비료를 마음먹은대로 생산할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기쁨과 환희가 차넘치는 준공식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나큰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대적인 린비료공장이 일떠선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은 몸소 저택정원에 시험포전을 차려놓으시고 주체농법을 창시하시였으며 한평생 포전길을 걸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모습이시였고 고난의 시기에도 나라의 토지를 번듯하게 정리하여 후대들에게 물려주시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모습이시였다.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인민들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하여 온갖 정력을 다 바치신다. 세계적인 린비료공업의 발전추세에 부합되면서도 알곡생산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순천린비료공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과 자력갱생의 정신이 안아온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창조물, 만년재부이다. 본사기자 고성 호

# 조선의 기상

조선의 기상이 빛발치고있다. 어제는 평양종합병원건설착공으로 선진적인 보건시설건설의 시작을 알린 공화국에서 오늘엔 현대적인 린비료생산기지를 준공하여 자력으로 흥하고 번영하는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정면돌파전의 길에서 공화국이 거둔 첫 쾌승이다. 적대세력들은 악랄하고 집요한 제재봉쇄책동으로 공화국이 가는 길을 멈춰세우려 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것이라는 것이 또 한번 증명되었다. 정면돌파전의 첫 승리를 안아온 공화국은 세상의 우려와 반신반의, 적대세력들의 잦은 비난을 놀라움과 경탄, 한숨과 탄식소리로 뒤바꾸어놓았다. 세계가 경이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공화국에서는 지금 가는 곳마다에서 기쁨의 환호성, 신심드높은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이렇게 큰것을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해냈는데 이제 못해낼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평양종합병원도 훌륭히 건설하고 찬란한 미래를 우리 손으로 앞당겨오자. 이것이 순천의 하늘아래 펼쳐진 자력갱생의 거대한 창조물을 보면서 이 땅의 남녀노소 누구나 터치는 가슴속 진정이다. 나라마다 발전을 이룩하는 방식과 경로는 각이하지만 조선의 발전방식은 그중에서도 특이하고 위력한것이다. 자력갱생, 과학기술! 이것이 공화국의 무궁무진한 전진동력과 거대한 발전 잠재력이다. 공화국은 이 힘으로 짧은 기간에 국가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지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도 련이어 획기적인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사회주의조선의 진두에는

백두산기상을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고 그의 뒤를 따라 천만의 인민이 노도쳐 나아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과학이고 승리이며 그이께서 결심하시면 공화국의 인민들은 무조건 해내고야만다. 정면돌파로 온갖 도전과 시련을 과감히 이겨내고 사회주의건설의 자랑찬 성과를 안아오는것이 이 나라 인민의 억센 숨결이고 기상이다. ... 백두산기상을 다 안고 근로의 정신은 깰들여 진리로 뭉쳐진 억센 뜻은 세계 앞서나가기 솟는 힘 노도도 내밀어 인민의 뜻으로 선 나라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빛내세 ... 일찍이 《애국가》의 장중한 울림속에 창건을 선포한 공화국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이르러 무한한 힘으로 솟구쳐 형성된 뒤흔들며 밝은 미래를 앞당겨오고있다. 본사기자 박영진

## 머투와 흠모

#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다. 위인의 첫째가는 위대성은 사상의 위대성이며 사상의 위대성은 위인이 지니고 있는 사상리론적예지의 비범성과 사상리론활동의 특징, 그가 이룩한 사상리론적예지의 높이에 의하여 규정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완전무결하게 계승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전진도상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비상히 풍부하고 독창적인 전략전술이 집대성되어있는 사상리론들을 제시하시어 인민들이 나아가길 환히 밝혀주고 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과 인민, 혁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안으시고 공화국의 제일국적인 정치사상적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며 자위적국방경각화와 경제건설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고계신다. 뿐만아니라 교육, 보건,

체육, 민족유산보호사업, 농업, 산업기술, 축산, 수산부문, 산림, 전력, 재정은행, 체신, 철도운수, 지질탐사사업, 파수업 등 각 분야별에 해당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명쾌한 해답을 주는 고전적로작들을 수많은 발표하시어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를 쌓으시었다. 그의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에 대해 영국순군정칙언구결로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2012년에만도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었는데 참으로 놀랍다. 그의 저서들만 보아도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심을 알수 있다.》고 격찬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에서 주요특징을 이루는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고있는 그것이다. 그의 사상리론활동은 철두철미 인민을 위한것이고 인민대중의 운명개척과 부

리증진을 위하여도 지향되고있다. 수년전에 벌써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인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하신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김정은장군과 오늘의 조선》이라는 주제로 열린 아시아태평양지역인터넷포럼에서 기조보고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은은 각 하계에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조선의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시고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유명한 명제를 내놓으시어 주체의 철학사상을 인류사상사의 최고봉으로 올려놓으시었다. 비상히 풍부하고 독창적인 전략전술이 집대성되어있는 김정은각하의 사상리론들은 사회주의위업완성의 길을 뚜렷이 명시한 불멸의 대강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는 인민이 꼭 차있다. 하기에 하시지는 말씀마다, 밝히시는 사상리론마다에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도 열렬한 사랑을 그득히 담으신다. 얼마전에 진행된 평양

종합병원 건설 착공식에서 하신 연설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이라는 표현을 거듭거듭 쓰시었다. 말그대로 첫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인민사랑으로 일관된 감동깊은 연설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조국통일위업수행의 앞길도 환히 밝혀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시신 조국통일3대원리에 단결, 평화보장과 량방제실현을 조국통일3대원리를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투쟁방침으로 제시하시어주시었다.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현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리론가를 당과 국가, 무리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시어 공화국은 력사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가장 끝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나아가고있으며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책동속에서도 승리의 북소리를 더욱 높이 울려가고있다. 본사기자 유금주

공화국인민들속에 정일심재로세아동들은 잘 알려져있다. 나도 취재차로 여러번 그를 만나면서 구면지기가 될만큼 친숙해졌었다. 과묵하면서도 대바른 성격, 온화하면서도 강직한 녀성. 무릇 이역에 사는 해외동포라면 누구나 인생교조를 겪은 민족의 일원이다. 정일심동포도 다를바없었다. 그는 고향 회령만에 태를 물었지만 풍정, 연길, 훈춘을 떠돌아다니다 끝내는 《원동소녀》, 《마슈겐뜨치너》로 불리울만치 부모형제들과 함께 불우한 망국민의 슬픔과 아픔을 다 체험했다. 어릴적 강보에 싸인채 부모의 등에 업혀 고향을 떠난 그에게 있어서 조국에 대한 표상이란 《고향의 봄》이나 《아리랑》, 《봉선화》노래에 비견 약소민족의 모습뿐이었다. 라향에서 시들과 마르던 꽃망울같은 정일심동포의 운명에 인생의 봄이 왔다. 해방후 동방의 일각에 솟아난 자주독립국가, 어머니 조국이 있어 삶의 희열이 살아나고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것이다. 그의 남편(안동수)이 조국해방전쟁에 용감 참전하여 목숨을 바친것도 바로 겨레의 삶의 보금자리인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조국은 남편을 공화국영웅으로 내세워주었고 전화의 나날에도,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도 그의 가정에서 생활보조금을 비롯하여 극진한 배려를 돌려주었다.

안동수영웅의 유가족들을 잊지 않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정일심동포에게 조국에 자주 오라고, 해마다 조국에 와서 휴식을 하라고 하시며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조국을 방문한 그를 여러차례 만나주시고 남편의 애국적소해도 높이

이 추억하는 값높은 삶을 누릴수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돌려주시신 각근하고 사려깊은 사랑이 있었기때문이다. 정일심동포가족이 안동수처럼 조국의 통일과 통일성명령을 위하여 헌신분투하기 바란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기대를 늘

나는 그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손수 채워주시신 시계의 초침처럼 순간순간을 후회없는 인생,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한다. 지난 4월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세 세상을 떠난 정일심동포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고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조전을 보내시었다. 나라 잃고 타향만리에서 살던 농군의 땀배인 배척삼우에 얽혔던 인간, 낯설고 물결은 이역땅에 문제를 달고 살아온 이름 없던 너인이 은혜로운 조국의 품에 삶의 피줄을 있고 살았기에 어제와 오늘은 물론 앞으로도 사람들의 추억속에 길이 살아있는 값높은 삶을 누리려는것이다. 정일심동포를 추억하며 나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셔야 민족의 운명도, 개인의 삶도 빛난다는 진리를 다시금 가슴뜨겁게 절감한다. 리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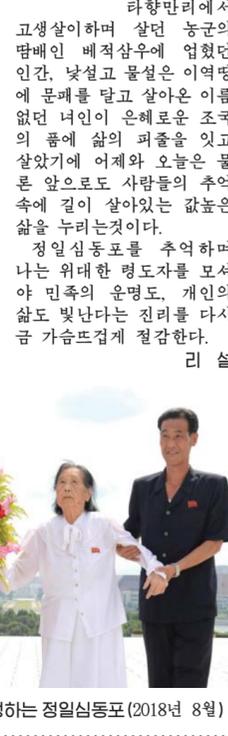
## 수필

# 사랑과 의리에 대한 추억

치하하였고 홀몸으로 자녀들을 돌보며 동포사회의 화목과 단합을 위하여 노력하고있는 그의 수고도 헤아릴수 없었다. 그가 앓을 때에 그는 조국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치료대책까지 세워주시었다. 그의 다심하고 극진한 사랑과 은정은 한량이 없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그가 조국에 올 때면 체류일정으로부터 생활조건에 이르기까지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일일이 관심하시고 보살펴주시었다. 새해를 맞으며 그에게 년 하강도 보내주시고 여든번째 생일을 맞을 때에는 사랑의 생일상과 선물도 보내주시신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정일심동포에게 기술이신 사랑과 배려는 정녕 끝이 없었다. 그가 쓴 도서 《위인과 조국》에서 리놓은것처럼 조국의 운명이자 그자신의 운명이었다. 그는 언제나 마음을 조국에 예뻐 살았다. 그가 90이 넘을 때까지 로당의 장하여 조국인민들

이 추억하는 값높은 삶을 누릴수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돌려주시신 각근하고 사려깊은 사랑이 있었기때문이다. 정일심동포가족이 안동수처럼 조국의 통일과 통일성명령을 위하여 헌신분투하기 바란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기대를 늘

나를 그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손수 채워주시신 시계의 초침처럼 순간순간을 후회없는 인생,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한다. 지난 4월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세 세상을 떠난 정일심동포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고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조전을 보내시었다. 나라 잃고 타향만리에서 살던 농군의 땀배인 배척삼우에 얽혔던 인간, 낯설고 물결은 이역땅에 문제를 달고 살아온 이름 없던 너인이 은혜로운 조국의 품에 삶의 피줄을 있고 살았기에 어제와 오늘은 물론 앞으로도 사람들의 추억속에 길이 살아있는 값높은 삶을 누리려는것이다. 정일심동포를 추억하며 나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셔야 민족의 운명도, 개인의 삶도 빛난다는 진리를 다시금 가슴뜨겁게 절감한다. 리 설



만수대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정일심동포 (2018년 8월)

# 통일위업실현의 앞길을 밝힌 정치대강

지금으로부터 4년 전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 주셨습니다.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있다고 하시면서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여 통일의 앞길을 열어 나가기 위한 현명한 투쟁 방침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 이것은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

방침입니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에 관한 조국통일3대헌장은 조국통일 3대헌장을 관철하여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휘황한 진로를 밝힌 가장 정당한 민족통일대강이다.

조국통일3대헌장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정신인 민족자주는 민족문제해결의 핵심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할수 있고 나라의 통일 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실질적인 힘도 우리 민족자신에게 있다. 그런것만큼 우리 민족은 자주적립장에 톤튼히 서서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위업은 그자체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것이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이다.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민족대단결이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며 조국통일의 필수적전제이다. 내외반동일호전세력의 광란적인 북침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이 엄중한 위협을 받고있는 오늘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지 않는다면 그가 누구든 참혹한 희생자의 운명을 면할수 없고 민족의 존재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

기 위한 투쟁이야말로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고 자주통일위업실현의 전제를 마련해나가는 정당한 예국 투쟁이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오랜 기간 굳어져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누구도 자기의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어느 한쪽의 제도에 의한 통일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통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분열을 심화시키고 돌이킬수 없는 민족적재난을 가져오게 된다. 우리 민족의 요구와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가장 공평하게 실현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이룩하는 길밖에 없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의

통일원칙과 방도는 북과 남이 이미 합의한 민족공동의 대이며 고귀한 전취물들이다.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력사적인 보고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향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있다.

월세의 애국자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민족의 앞길을 창창하며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며 조선반도의 공교한 평화를 보장하고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자주적으로 벌려 나감으로써 자주적이고 변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안아오야말것이다.

김광익

#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하여 《나가자 통일의 광장으로!》

4.19인민봉기후 남조선의 장면(정권)은 《용공통일보다는 현재대로의 분단을 택하겠다.》는 매국배적적인 허풍을 늘어놓으면서 인민들의 통일지향을 가로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그러나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진출은 더욱 강화되었다.

북남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뜨리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는 남조선의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청년학생들이 서있었다.

이미 남조선의 각 대학단위로 《민족통일연맹》을 조직하였던 진보적인 청년학생들은 자주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의세와 사대부세력의 책동을 반대하는 각계층인민들의 공동투쟁에 적극 참가하는 한편 자주통일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도 중단없이 벌여왔다.

이런 가운데 1961년 5월 3일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은 대의원총회를 열고 남북학생회담, 학생기자교류, 남북학생학술토론회, 남북학생친선체육대회 등을 가질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남북학생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애국적발기는 8.15후 15년이상이나 국도를 갈라놓고있는 북과 남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의 통일을 하루빨리 성취할것을 바라는 온 민족의 절절한 념원과 시대의 요구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민족자주통일증약협의회》(《민자통》)는 5월 4일 성명을 발표하여 남북학생회담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목소리가 힘있게 울려나

왔다.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세차게 끓어번진 모임에서는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결의는 남북학생회담뿐 아니라 남북정당, 사회단체도 조속한 시일내에 민족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북정치협상의 만반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데 대해 강조하였다.

대회가 끝나자 수만명의 군중은 온 서울땅을 진감시키면서 시위행진을 벌였다.

시위자들은 《통일만이 살길이다》, 《배고파 못살겠다》, 《이 땅이 누 땅인데 오도고도 못하느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 《나가자 통일의 광장으로!》, 《남북학생회담성취 만세!》, 《유엔군은 남북학생회담에 모든편의를 제공하라!》, 《남북학생회담을 조속히 실현할뿐더러 남북정치협상체제를 갖추자!》 등 구호를 부르고 배라를 뿌리면서 기세충천하여 행진하였다.

서울에서 타오른 남북학생회담환영 및 민족자주통일축진을 위한 공동투쟁의 불길은 부산, 광주, 대전 등 주요도시들에 퍼져 열기대회와 대중적인 시위들이 련속 벌어졌다.

대구에서는 5월 17일로 예정된 대규모적인 열기대회와 시위를 준비하기 위한 가두신진행진이 5월 15일에 벌어졌다. 행진대는 통일된 조국의 큰 지도도형과 어깨동무한 북남학생들과 동포형제들이 상봉하는 장면들을 형상한 인형가장물을 들고 《통일은 가까와온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모여라 판문점에!》라는 구호가 인쇄된 배라를 뿌리며 수

많은 시민들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시가행진을 진행하였다.

은 남조선땅은 남북학생회담을 지지하는 열망적성원과 통일이 가까와온다는 부풀은 기대로 하여 드높은 감격의 파도로 설레었으며 곳곳에서 남북학생회담을 위한 가두모임운동이 벌어지고 학생회담편으로 북남사이의 서신을 교환하기 위한 편지수집운동까지 진행되었다.

각계층 인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속에서 남조선 청년학생들은 남북학생회담에 참가할 지역별학생대표를 선정하는 등 준비를 다그쳤으며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결성대회를 준비하는 한편 5월 20일 열기대회대표들이 청년학생들의 일대 시위행진속에 판문점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하였다.

그들의 기세는 드높았고 결의는 확고하였다. 의세와 그 하수인들이 《용공》의 딱지를 붙여 판문점학생회담을 파탄시키려고 책동해나서자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결성준비위원회는 자기의 성명서에서 《우리는 만나서 부둥켜안고 울고 웃으며 분열된 설움과 상봉의 기쁨을 나눌것이다. 이 데울로기론쟁이나 담판하기 위하여 만나는것이 아니라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광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단호히 선포하였다.

남조선 전 지역에 굽이친 민족자주통일운동의 거세찬 파도는 자주적인 노력과 투쟁으로 온 민족이 일일천주교대하는 통일을 앞당겨주는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열망과 의지를 잘 보여 주었다.

본사기자 강무성

## 조국통일 3대헌장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라고, 조선로동당의 주체적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있다고 천명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혀 주시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3대헌장은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밝혀주고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 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이 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는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융합하는 기초에서 가장 공평하고 순조롭게 실현

《좋은 종자도 비옥한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태양의 열과 빛을 받아야 알찬 열매를 맺는다. 내가 미술가로서 성공했다면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보다 공화국의 품에 안겨 우리 민족의 위대한분을 스승으로 모시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름난 조선휘화가의 한사람이었던 김일성장군, 인민예술가, 예술학박사였던 정창모가 생의 말년에 남긴 말이다.

정창모의 고향은 전라북도 전주이다.

그는 1931년 12월 가난한 로동자 가정의 둘째아들로 출생하였다.

그의 아버지 정인성은 표구술에 능숙하고 외할아버지 리평렬(호는 효산)은 전라도에서 이름을 날린 서예가, 문인화가였다.

그에서인지 정창모는 어려서부터 그림에 애착을 가지고 제법 율방자를 들고앉아 어른들의 그림시중을 들어주었고 때로는 자기의 팔뚝보다 더 긴 붓을 들고 나름대로 무엇인가 그려보기도 하였다.

그가 그린 그림을 보며 제일 기뻐한것은 외할아버지였다. 어린 그에게서 미술가로서의 싹을 보았던것이다.

그러나 그 기쁨은 한순간, 귀여운 외손자를 장차 이름난 미술가로 키우고싶었으나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가난을 밥먹듯 하며 살아가는 처지에서 《표화화가》의 앞날을 기약한다는것은 그림속의 떡이나 같았다.

날이 갈수록 어린 소년의 손에서 붓과 종이는 점점 멀어졌다.

나라가 해방된 후에도 정창모는 저도 모르게 끌려드는

미술의 세계에 빠져들고있었지만 또 다른 외세의 군화발에 짓밟혀 시름하는 남녘동포들의 처지를 보며 미술가가 되려는 꿈을 부채질듯 하지 않았던 안이었다.

그는 리승만연도의 반인민적정정치를 반대하여 투쟁에 나선 형의 영향을 받아 학생운동에도 참가하였다.

그 나날 정창모는 자기의 꿈을 지키려 할 때 운 제도가 없이는 설사 미술을 배워도 해도 진정한 미술가로서의 삶을 누릴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민족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정사를 펴고계시는 북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때부터 정창모는 근로하는 인민이 정권의 주인이 되고 누구나 새 생활의 환희에 잠겨 생활하고있는 공화국을 목시 동경하였다.

1950년 6월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반공격하는 인민군대에 의해 전주가 해방되자 그는 제일먼저 인민군대에 찾아가 자기에게도 일을 맡겨달라고 제기하였다.

조선인민군에 입대한 그는 가령처럼 전투의 나날에 진정한 조국과 궁지높은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절감하게 되었다.

이을수 없는 그 시절 그에게 뜻밖에도 그림을 그릴 기회가 찾아왔다. 그때 부대에서는 연극을 만들어 병사들앞에서 공연할 계획을 세웠는데 무대미술을 맡을

## 공화국의 품에 안겨 위대한 아버지를 스승으로 모시여

만 한 사람이 없애 풀머리를 앓다가 부대지관원인 그에게 일을 맡겼던것이다.

홍로란이 우박처럼 전장에서 전우들을 위훈으로 불러일으킬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니 그의 가슴은 한껏 부풀어 올랐다.

그는 전투의 열참마다 심혈을 기울이며 붓을 놀렸다.

그렇게 완성된 무대배경그림은 전사들의 대접찬을 받았으며 이때부터 부대에서는 그를 당당한 미술가로 인정하였다.

전후 그는 《홍산골전투》라는 제목의 미술작품을 형성하여 리단전람회에서 1등상을 받았다.

1957년 9월 정창모는 미술대학 전분부 조선휘화(당시) 2학년에 편입하였다.

이때부터 정창모의 미술전문공부가 시작되었다.

정창모는 《더 진실하게, 더 훌륭하게, 더 독특하게, 더 아름답게!》라는 엄격한 창작적요구를 세우고 불타는 열정과 사색을 더해 미술가로서의 품격을 갖추어나갔다.

그가 지금도 사람들 기억속에 남아있는것은 수령형상작품을 조선휘화로 훌륭히 형성해낸 이름난 미술가들중의 한사람이기때문이다.

정창모는 직업적인 미술가로서의 첫걸음을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으로 내디딘 대담한 조선휘화가였다.

그가 이런 결심을 내리게 된것은 졸업한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품모에 대하여 직접 체험한 그때에 벌써 형성된 것이었다.

배웠었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겨레에게 새 삶의 희망을 안겨주신 김일성장군님, 삼천리금수강산을 불바다에 잠근 침략자들에게 또다시 조선사람의 본래를 보여주어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강철의 명장, 전후부조건설의 힘찬 등용속에 날마다 시간마다 변모되어가는 공화국의 담찬 모습.

이 모든것은 그에게 한없이 자애로우신 그의 모습을 형성하지 않고서는 못견디게 생각했었고 또 품어있었던 것이다.

위대한 그의 태양같은 영상을 형성하자면 자기의 예술적기량이 너무도 미약하다는것을 잘 알고있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사색에 탐구를 거듭하여 그는 처녀적인 조선휘화 《배머리에 오신 수령님》을 창작 완성하였다.

이것은 그의 대학졸업작품이기도 하였다.

부드럽고 유연한 색채로 조화를 이루고 자그마한 부분과 세부까지도 빈틈없이 재

를 내오시고 유능한 창작가들을 망라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이 격동적인 시기에 정창모는 만수대창작사에 소환되어 새로운 창작적열정을 안고 창조사업을 벌리게 되었다.

그 나날 그가 그린 《설맞이에 오신 수령님》은 아버지수령님께서 보시고 그림이 참 좋다고 평가해주셨다. 뿐만아니라 정창모와 여러 미술가들이 집체로 창작한 《꽃밭》을 보시고는 그림을 참 잘 그렸다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이렇듯 자그마한 성과를 두고 걸음걸음 사랑에 사랑을 부여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에 이끌려 그는 조선휘화의 권위있는 대가로 성장하였다.

정창모는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하에 조선휘화 《남반부인민들과 담담하시어 아버지수령 김일성동지》, 《농민들의 영농사업을 지도하시어 존경하는 김정숙동지》를 비롯한 불멸의 영상작품들과 함께 《금강산계곡》, 《백두산》, 《동해의 아침》, 《용평로가 보이는 바다》 등 멋진 풍경화들을 련이어 창작하였다.

그가 조선휘화 《천구수피는

를 내오시고 유능한 창작가들을 망라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이 격동적인 시기에 정창모는 만수대창작사에 소환되어 새로운 창작적열정을 안고 창조사업을 벌리게 되었다.

그 나날 그가 그린 《설맞이에 오신 수령님》은 아버지수령님께서 보시고 그림이 참 좋다고 평가해주셨다. 뿐만아니라 정창모와 여러 미술가들이 집체로 창작한 《꽃밭》을 보시고는 그림을 참 잘 그렸다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이렇듯 자그마한 성과를 두고 걸음걸음 사랑에 사랑을 부여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에 이끌려 그는 조선휘화의 권위있는 대가로 성장하였다.

정창모는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하에 조선휘화 《남반부인민들과 담담하시어 아버지수령 김일성동지》, 《농민들의 영농사업을 지도하시어 존경하는 김정숙동지》를 비롯한 불멸의 영상작품들과 함께 《금강산계곡》, 《백두산》, 《동해의 아침》, 《용평로가 보이는 바다》 등 멋진 풍경화들을 련이어 창작하였다.

그가 조선휘화 《천구수피는

창성명》을 창작하였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작품을 보아주시면서 부족점도 바로 잡아주시어 그림이 명작으로 완성되도록 걸음걸음 보살펴 주시었다.

이뿐이 아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좋아하시는 금강산의 비봉폭포를 그리려는 영예로운 과업을 정창모에게 맡기시어 조안과 본좌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지도해주셨다. 그리고 시도 그의 창작성과 높이 평가하시어 1977년에는 공훈에 술가칭호를, 1989년에는 인민예술가의 칭호를 수여하도록 배려해주셨다.

그 사랑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정창모는 즐거운 창작 활동을 벌려나갔다.

그는 40여년간의 창작생활기간에 불멸의 수령형상작품과 국보적인 작품들 비롯하여 수천여점의 미술작품들을 남기었다.

그의 작품들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되는 미술전람회들에 참가하여 주체미술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치었으며 참가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그의 작품들중에는 《기러기떼》, 《문계산마을》, 《광야의 철새》, 《4.19의 용사들》 등 조국의 통일을 갈망하는 작품들도 많다.

그는 생전에 늘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남조선에 있을 때 나는 재능은 있으나 성공을 기억할수 없는 불행이었다. 하지만 나를 세상이 다 아는 인재를 키워주신분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입니다.》

그렇다. 재능과 성공은 참된 삶을 꽃피우는 조국이 있어야 하나로 이어질수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통일투쟁의 앞장에 선 남조선청년학생들

# 긴장격화의 장본인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 공화국을 자국하는 군사적도발에 계속 매달리고있다. 남조선군부는 지난 4월부터 수만명의 군병력을 동원하여 전염병사태로 중단되었던 각종 훈련들을 연속 재개하고있다. 특히 지난 4월 20일부터 5일동안 남조선강점 미공군과 함께 대대공공증원훈련을 벌여놓았으며 오는 8월 미군이 주관하는 《림팩》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는 등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재개에 극성을 부리고있다.

한편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은 얼마전에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2호기를 비밀리에 끌어들이며 배치한데 이어 최근에는 중거리 지상대공중미사일 《천궁》의 실전배치를 완료하고 2 800t급신형호위함 《동해》호 진수식을 벌여놓았다. 그리고 수억US\$를 투자하여 2026년까지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를, 2030년까지 《한국형구축함》을 개발하겠다고 떠들어댔다. 지금 전세계가 대유행전염

병사태로 촉박한 재난을 당하고있는 때에 이에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 벌려대고있는 군사적대결소동은 제손으로 제 무덤을 파는 철없는 군사적 망동이다. 가판은 도적이 도적이야 한다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껌변이다. 남조선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부우두머리들은 《북이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고있다.》고 떠들어대면서 군부대들을 돌아치며

상황발생시 숙달된 《대응지침》에 따라 단호하게 행동하라며 대결의식을 고취하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공화국과 제국이 군사적으로 대결해 보려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흥심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있음을 뚜렷이 실증해 주고있다.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은 어떤 말장난으로도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격화해오며 물아가는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가리울수 없다. 본사기자 전명진

최근 《유엔군사령부》가 조선전쟁도발 70년을 계기로 벌려놓은 이른바 조선전쟁과 관련한 자료수집놀음이 내외의 조소와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유엔군사령부》는 컴퓨터망에 조선전쟁자료수집과 관련한 음모광고를 띄우고 조선전쟁과 관련한 사진, 그림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놀음을 벌려놓고있다. 그러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목적이 《6.25전쟁 70주기를 추모하고 참전용사들의 회생을 명예롭게 찬양》하는 데 있다고 떠들고있다. 패배자들이 벌려놓은 자

료수집놀음이야말로 가마속의 삶은 소대가리도 폭소를 터칠 희비극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세기 50년대 제국주의침략세력이 갖 창건된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고 세계경제야망을 실현하기 위

로서는 불순한 기도의 산물이 아닐수 없다.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침략무리들은 《레우》나 《추모》, 찬양반을 《역사적인 물》들이 아니다. 그들은 몇푼의 돈에 팔리워 남의 나라 땅에 기여되었

낮을 불행 야수적만행을 감행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치떨리는 반인륜적죄행들이다. 더우기 격분을 자아내는 것은 남조선당국이 이러한 침략자들의 범죄를 미화분식하기 위해 《유엔참전용사의 날》, 《유엔참전용사 국제주의의 날》까지 제정하며 대미추중에 광분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에서는 해마다 6월이 되면 의세와 함께 도처에서 지난 조선전쟁과 관련한 각종 《기념행사》들이 요란스럽게 진행되곤 한다. 그러나 력사의 진실은 가리울수 없고 외곡할수도 없다. 조선전쟁의 도발자, 야수적인 침략자, 수치스러운 패배자로서의 침략세력의 몰골을 인륜적 영원히 기억할것이다. 본사기자 황금숙

남조선 각계층에서 미국의 략탈적본성과 오만성을 폭로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얼마전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은 경기도 평택미군기지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급휴직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시행되면 언제든 지로 무급휴직을 인질로 잡을수밖에 없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시행제도를 규정 한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미국은 남측무장들에 대한 무급휴직조치, 방위비분담금증액강박 등 아비한 행태를 보이고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을 주 《한》미군유지는 물론 세계평화협력비용에 포함시키려 하고있

다.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알려진것처럼 미국은 남조선이 더 많은 방위비분담금을 내라고 계속 강박하고 있다. 지난 3월 증순에 진행된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7차회의에서도 미국은 호상 받아들일수 있는 합의에 이르려면 남조선이 《더 큰 집종과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것》이라며 압력을 가하였다. 얼마전에는 남조선이 《국방협약》을 위해 미국에 돈을 더 많이 내기로 합의하였다. 그동안 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미국이 상당히 유연성을 보였기때문에 남조선 《정부》도 융통성을 보여야 하며 공평한 몫으로 기여해야 한다

고 일방적인 혼시를 늘어놓았다. 가해자가 피해자손해를 내며 더 많은 《피해보상금》을 내라고 울러내는 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방위비분담금증액을 강요하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요구에 항변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비위를 맞추는 데 골몰하고있어 민심의 분노를 사고있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상정의 환심을 사려고 미국산 무기 구입에 더 많은 돈을 탕진하는가 하면 반환되는 남조선강점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정화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의사를 보이는 등 비굴하게 놀아내고있다. 지어 《협상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공개할 내용이 없다.》고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대미저자세에 대한

부정적여론을 차단하는데만 급급하고있다. 친미사태와 굴종에 찌든 식민지노복만이 할수 있는

가련한 행태인것이다. 안팎으로 얻어맞는 남조선당국의 현실은 아부와 굴종의 대가가 참으로 혹독하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신길원

남조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민심의 배척을 받아 그 꼴이 말이 아니다. 최근 지지율이 갈수록 곤두박질하고 있는것을 그걸 잘 보주고있다. 한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데 의하면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지난 2월 《미래통합당》이 발족한이래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한다. 《미래통합당》이 지난 선거를 앞두고 《보수대통합》의 미명하에 어중이떠중이들을 끌어모았다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하지만 그 결과 당안이 파멸들이 더 생겨나고 지금은 당권쟁탈을 위한 파벌들사이의 갈등과 대립으로 당이 풍지박산날 위기에 처해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내오기 위해 제2대 《국회》의원당선자총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런

이어 벌려놓았지만 《김종인체제》구성여부와 권한, 운영기일문제를 둘러싸고 내부가 더한층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속에서 《국회》의원후보 《공천》에서 밀려났던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 대표 홍준표가 당밖에서 《미래통합당》의 위기수습놀음에 대해 련일 비난공세를 퍼붓고 자문기구구성을 비롯한 세력구합놀음에 열을 올리는가 하면 공명연히 《대통령》선거에 나설 의사를 드러내놓아 보수패당내부를 더욱 들쭉서 놓고있다고 한다. 여기에다 립시당권을 쥐고 있는 원내대표 심재철마저 각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당안에서는 상식적인 말도 통하지 않는다. 당의 진로는 새 원내대표가 결정할것이라고 하면서 필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오고있다고 한다. 이것은 사실상 위기수습을 포기한것이나 다름없는것으로 하여 보수층속에서는 차라리 완전히 망하여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탄식소리까지 울려나오고있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안에 내세울만한 인물이 없는것도 문

제라고 한다. 지난 2004년 《불법대선자금수수 의혹》으로 보수패당이 위기에 몰렸을 때에는 《친박당》을 쳐놓고 지지세력을 끌어모으는 추태를 부렸고 2016년 《총선》패배에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놀음을 벌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중진인물이 자라는 찾아보기 힘든 지경에 있고 당밖에서 지원사격을 하는 소위 보수원로라는 인물들도 특독한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그저 입방아만 찧고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남조선언론들은 《미래통합당》이 《사면조가》의 신세라고 평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민심을 기만하여 지지물을 끌어올리려고 당명까지 고친것이 불과 몇달전의 일이다. 하지만 보자싶이 미래로 나아가기는커녕 당장 망하기 직전에 있는것이 《미래통합당》의 기운치 지이다. 물에 빠진듯 지푸레기라도 잡는다고 했는데 이 적폐집단에게는 잠을 《지푸레기》도 없다. 옥철웅

## 《저러니 지리멸렬 할수밖에 없다》

—남조선 각계가 규탄—

남조선에서 《미래통합당》을 규탄격격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날로 더욱 높아지고 있다. 남조선의 정치권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일방적의 자성이나 쇄신도 없이 차기 당권싸움에만 폭주하고있다.》, 《저러니 지리멸렬할수밖에 없다.》는 비난과 조소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민심의 단호한 심판을 받고도 추호의 반성도 없이 내부싸움질만 일삼는 추한 행태가 얼마나 골몰견인지 보수언론들도 《미래통합당은 몸집은 성인이지만 정신적, 지적으로는 성장을 멈춘 《어른아이》이다.》라고 하면서 《《공가투정당》, 《너가 없

는 정당》은 망하러면 입참에 아예 말장 망하는것이 보다.》고 야유와 조소를 보내고있다. 민주개혁세력과 언론, 전문가들은 물론 보수세력 내부에서도 《미래통합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있다.》, 《사전투표조작설은 가장 경제고 추방해야 할구태정치행태》라고 강력히 규탄해나서고있다. 최근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율이 10%대로 대폭 떨어졌으며 역직당은 진보와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에서도 배척을 받아 더욱더 막다른 궁지에 빠져들고있다. 본사기자

## 다 망한 집안의 싸움

망하는 집안에 싸움만 잦다는 말이 있다. 남조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처지가 꼭 그 모양이다. 《총선》이후 당지도부 구성문제와 관련한 개싸움질이 고치지 않고있는것이다. 지금도 《미래통합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내오는 문제와 조기전당대회개최문제, 차기 당권장악문제 등을 둘러싼 각 계파들사이의 심화되는 알뜰과 대립으로 하여 내부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사전투표조작설》을 내 돌리고있는것도 사회적비난거리로 되고있다. 《미래통합당》패거리들은 사전선거투표함을 바꾸었다고 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수 많은 현상금을 걸고 정보조작자색출놀음을 벌려다 못해 지어 미백관청원사이로에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망신스러운 행동까지 하였다 고 한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남조선 각계층은 물론 보수세력 내부에서조차 당에서 고작 한다는것이 내부싸움질뿐이다.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를 고사하고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저러니 지리멸렬할수밖에 없다 하면서 《미래통합당》에 비난과 조소를 보내고있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오늘에 와서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변변스럽게 민의에 역행하며 발광하는 정치치정배, 역직무리에게 차례진 응당한 대결이요 하

## 잠을 《지푸레기》도 없다

사회적 자주화, 민주화를 가로막고 민생을 짓밟는 보수적패의 본당인 《미래통합당》을 단호히 청산해야 한다는것이 오늘의 남조선 민심이다. 지금 《미래통합당》패거리들이 그 무슨 《환골탈태》와 《혁신》을 떠들고 있지만 까마귀가 백로로 될수 없듯이 사태와 동족대결, 반인민적악정과 부정부패를 생장방식으로 하는 보수패당의 추악한 본성과 기수는 절대로 변할수 없는것이다. 시대와 민심에 도전하여 살구멍을 찾으려고 버드러거리는 보수역적패당이 갈 곳이란 력사의 시궁창밖에 없다. 본사기자 박철남

## 또다시 《쇄신》을 운운하는 반역정당을 비난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족일보》가 일터 또다시 《쇄신》을 운운하는 《미래통합당》을 비난하는 사실을 실었다. 사실은 4월 28일 김종인이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고 한때 밝혔다.

부정부패정치인, 천재정치인으로 알려진자를 내세워 그 무슨 《쇄신》을 이루겠다는것자체가 민심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사실은 주장하였다. 민심은 《미래통합당》에 참을 벌고 돌아선지 오래다 고 하면서 사실은 다음과 같

이 강조하였다. 《미래통합당》의 언곡은 스스로 얼마나 혐오스러운 악페우리인가를 드러내고있다. 《미래통합당》이 친미극우세력, 민족반역세력과 함께 완전히 파멸하는것은 필연이다. 본사기자

## 5. 18 진상규명, 력사외곡행위처벌을 위한 조사활동 등을 선언

3일 남조선 《연합뉴스》가 광주인민봉기가 일어난 때로부터 40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각계에서 광주학살만행의 진상을 폭로하고 력사외곡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투쟁이 확대되고있는데 대해 전하였다. 그에 의하면 1980년 5월 전두환의 《정권》찬탈에 맞서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이 밝혀지기는커녕 오히려 력사와 정신이 심히 외곡되고 지금도 망언이 계속되고있다. 당시 광주를 봉쇄하고 언론을 장악한 전두환패당은 5.18항쟁을 《불순분자에 의한 폭동》으로, 항쟁에 참가한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하였다. 하지만 5.18광주인민봉기는 독재통치를 반대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벌린 대중적민주항쟁으로 력사에 기록되어있다. 그동안 광주항쟁의 력사와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각계의 투쟁과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과거 5.18광주봉기를 《폭동》으로, 희생자들을 《중복파자극자 만든 괴물》로 매도한 극우보수세력을 처벌하기 위한 《5.18력사외곡처벌법》 제정운동에 각계가 떨쳐나섰다. 일각에서는 《5.18력사의 외곡처벌법》에서 더 나아가 5.18의 력사와 정신을 외

곡하는 행위에 중지부부를 찍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있다. 올해 5.18민주화운동 40년을 계기로 5.18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주학살만행의 진상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조사위원회는 1980년 5월 광주학살만행의 주범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은폐되어온 범죄진상 등 구체적인 사실자료들을 밝혀낼것이라고 한다. 한편 5.18관련단체들과 연계 단체들은 광주 등 각지에서 5.18의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확대시켜나가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 《조선사람은 일본의 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

이것은 일제의 초대 조선총독이었던 테라우제가 떠벌린 가증스러운 녀두리이다. 1910년 8월 강도적인 방법으로 불법비밀의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 일제는 그해 10월 1일에는 조선통감부를 조선총독부로 간판을 바꾸고 포악무도한 식민지총독정치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일제의 식민지총독정치는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이고 악독한 파쇼독압통치였다. 일제는 우선 조선민족의 반일외식을 말살하고 식민지 파쇼통치체제를 확립하는데 광분하였다. 이를 위해 일제는 헌병경찰제도에 기초한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 1910년 12월 테라우제가 공포한 이른바 《범죄적결령》에 따라 일제는 이른바 곳곳마다 거미줄처럼 벌은 헌병 및 경찰기구의 우두머리들에게 범죄수속이나 재판도 없이 조선사람들을 마음대로 처형할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파쇼독압적인 《범죄적결령》에 따라 일제는 터무니 없는 구실을 붙여 조선사람

## 잠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들을 다치는대로 체포, 투옥, 학살하는 야수적만행을 저질렀다. 1918년에 일제에 의한 조선인검거건수가 1912년에 비해 10배이상 늘어난 사실은 일제가 당시 조선민족에 대한 탄압, 학살만행에 얼마나 미쳐달렸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게 한다. 일제는 조선민족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반일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말살하기 위하여 이전부터 실시해오던 《보안법》, 《출판법》 등 각종 악법들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집회회체령》, 《지문지법》을 비롯한 새로운 악법들을 련이어 조차발포하여 실행하면서 전조선땅을 무시무시한 파쇼적독압과 공포정치의 살벌한 분위기로 뒤덮었다. 쌓이고쌓인 조선민족의 민족적울분과 사무친 원한은 드디어 1919년 3월 1일 전민적족적봉기로 폭발하였다. 평양에서의 대중적인 독립만세시위투쟁으로 시작된 애국적인민봉기는 삼시에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겁을 먹은 일제는 종래의 무단통치를 기만적인

## 전대미문의 극악한 식민지총독정치

《문화통치》로 바꾸는 교활한 놀음을 벌려놓았다. 일제는 《문화통치》의 간판밑에 조선에 대한 잔악한 군사통치의 본질을 가리우기 위해 총독은 무관만이 할수 있던것을 문관도 할수 있다는것, 헌병경찰제도를 《철령》하고 《보통경찰》제도로 넘어간다는것, 관리나 교원들에게 갈을 채우던것을 《페지》한다는것 등을 요란스레 선전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총독정치의 범죄적성격과 목적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술책에 불과하였다. 일제가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개편한 후 경찰기관은 종전보다 줄어든것이 아니라 훨씬 더 늘었다. 특히 일제는 종래의 로골적인 헌병, 경찰대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비밀경찰을 대폭 늘이는것과 함께 헌병제도를 수습이 되고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는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일제는 방대한 규모로 확장된 경찰독압기구에 의거하여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한편 경제적락탈에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1920년대 조선에 대한 일제의 경제적락탈에서 기본은 농촌수탈이었으며 그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룬것이 《산미증식계획》의 간판밑에 감행된 쌀의 대량적락탈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일제는 1927년부터 1931년까지의 기간에만도 조선에서 660만석의 쌀을 락탈해갔다. 일제의 악착한 락탈책동으로 조선사람들은 굶주림과 병마에 시달리다 못해 정든 고향을 떠나 류랑의 길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일제는 조선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우리 말과 글까지 없애려고 갖은 악독하고 비열한짓을 다하였다. 또한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제물들의 침략전쟁터들과 고역장들에 내몰아 무참한 죽음을 가혹한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 일제의 잔악무도한 식민지총독정치의 후과로 조선은 말그대로 파쇼적독압과 살인만행이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인간생지옥으로, 암흑천지, 인륜불모지로 전락되었다. 지난날 일제가 식민지총독정치를 강행시한 죄행을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할수 없고 덮여버릴수 없다. 본사기자 주광일

## 세계보건기구 총국장 대유행전염병과 관련하여 언급

세계적으로 《COVID-19》가 날로 더욱 확대되고있는 속에 세계보건기구 총국장이 6일 많은 나라들에서 봉쇄조치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세계적으로 4월부터

매일 평균 약 8만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만일 각국이 단계적인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봉쇄조치를 다시 실시해야 할 위험이 현실화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또한 대유행전염병에 대처할수 있는 강력하고도 탄력있는 보건제도를 수립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 세계보건기구 총국장 대유행전염병과 관련하여 언급

매일 평균 약 8만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만일 각국이 단계적인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봉쇄조치를 다시 실시해야 할 위험이 현실화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또한 대유행전염병에 대처할수 있는 강력하고도 탄력있는 보건제도를 수립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창씨개명》을 강요한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

# 인기높은 《꽃망울》 식료품들을 생산하여

## — 평양어린이 식료품공장에서 —



평양어린이 식료품공장은 온 나라의 어머니들이 관심하는 공장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우유와 에기젯

가루를 비롯한 맛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들은 입산도, 에기머머들속에서 인기

를 도입하였다.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추진한 결과 공장의 공

유유생산공정, 에기젯가루 생산공정 등 여러 생산공정이 식

내용에 이어 콩팍티드유유가루, 키크기압가루, 물고기뼈가루, 스프롤리나

공장에서 생산한 입산모배 합젯가루를 사용하였는데

에기가 출생당시 생리적지표들에서 우수했고 나는

해산후에 첫분비가 잘되었다. 지금도 아이는 감기 한번

## 자체의 힘과 기술로

몇해전 12월 어느날 이 공장을 찾아주신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을 극력 절약하면서도 생산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현대적인 공장으로

특히 열풍 및 마이크로파 건조기술을 도입하여 냄새의 색과 맛을 그대로 보존

지난해에만도 공장에서는 현팔레트드유로, 프록토올

이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지금 각지의 산원들과

새 교육용전집들들과 가요합스프그램 《축원》, 조

리성호 어린이영양식료품연구소 소장은 《아이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것이

또한 학생들이 음악이 초지식과 여러 악기에 대한 연주

## 자체의 힘과 기술로

몇해전 12월 어느날 이 공장을 찾아주신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을 극력 절약하면서도 생산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현대적인 공장으로

특히 열풍 및 마이크로파 건조기술을 도입하여 냄새의 색과 맛을 그대로 보존

지난해에만도 공장에서는 현팔레트드유로, 프록토올

이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지금 각지의 산원들과

새 교육용전집들들과 가요합스프그램 《축원》, 조

리성호 어린이영양식료품연구소 소장은 《아이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것이

또한 학생들이 음악이 초지식과 여러 악기에 대한 연주

## 늘어나는 로동자발명가, 창의고안명수들

공화국 각지에서 과학기술학술열풍이 세차게 일어선지

민용연로보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연구성과들을 이

일수 있는 새로운 기술혁신안을 창안도입함으로써 광물

장의 로동자들은 설비의 현대화와 생산정상화에 이

일이 좋을뿐 아니라 무늬 또한 아름답고 다양하여 인

공화국에서 진행된 여러 전람회들에서 최우수상을

아름다운 무지개가 비친듯 교운 색깔의 아동양말

많은 수습여공이나 된다. 공장에서는 피부의 기능과

내가 조선대학교를 졸업하고 낫설은 군마당에서 교편을 잡은지 웅근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학생들이 나의 가슴에 《선생님》 칭호를 달아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10년세월 교육자로서 몇몇이 살아갈수 있는것은 이곳 동료들의 《손맛》 덕택이라고 말할수 있다. 동료불고기가게에 초대하여 맛있는 음식도 먹어주고 왼쪽을 갈때면 진수선한 압박도 해주곤 하였으니 동료들의 그 《민음의 손맛》들에 떠받들려 부끄럽지 않은 조선학교 교원으로서 크게 성장할수 있었던것이다. 뿐만아니라 같은 동네에 사는 동료들이 반죽개까지 수고가 많으며 반찬을 들고 집까지 찾아와 줄 때도 있었고 어떤 동포 어머니는 로리만드는 법도 배워주었으니 솜씨가 서툴다고 로리를 멀리하던 내 가슴에도 불이 일어 부여에 서는 일이 많아졌다. 그 덕분에 우리 민족음식을 할줄 아는 조선녀성으로, 소년단원들 못지않게 《향상준비》 할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돌이켜보니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또 하나의 《손

엔제인가 대학신문에는 《박사할머니,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의 절박한 미담소개기가 실린적이 있었다. 발복계 퇴근길에 올랐던 리영은실장이 지하철도역 앞에서 울고있는 네살짜리 처녀를 불안고 속을 태우며 부모를 찾아준 내용이었다. 《야, 집이 어디냐?》 《몰라요.》 《아버지, 어머니 어디 갔니?》 《몰라요.》 사람들이 봄비는 속에서 함께 가던 아버지를 놓쳐버린 처녀에, 뒤늦게야 얼굴이 온통 땀투성이가 되어 허겁지겁 달려온 아버지, 서로 찾아다니느라 피그나지친 이들은 인정 많고 고마운 할머니에게 거듭거듭 인사를 하였고 처녀에게는 간식봉지를 품에 안은채 오래도록 손을 흔들었다. 《민약 그들이 녀성의학자 리영은선생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커다란 존경심을 담아 《박사할머니,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했을 것이다. 그의 박사논문은 《바다진주》의 출현과 더불어 훌륭히 완성되었다. 50여종의 영양성분과 약성분들이 함유된 다시마에서 결합시알산과 관련된 여러가지 효소들이 신기한 중합반응을 일으켜 효능높은 약품

## 색깔 곱고 질 좋은 《철쭉》 양말

일이 좋을뿐 아니라 무늬 또한 아름답고 다양하여 인민들이 즐겨 리용하는 《철쭉》 양말은 평양양말공장에서 생산되고있다. 공화국에서 진행된 여러 전람회들에서 최우수상을 수여받은 《철쭉》 양말은 지금 그 형태와 색깔, 무늬가 더욱 개선되어가고

아름다운 무지개가 비친듯 교운 색깔의 아동양말에는 동시에 맞게 만화영화들에서 나오는 너구리, 곰, 야옹이, 곰돌이를 비롯해서 《키티》와 《뽀》도 새겨져있다. 특히 체육인들을 위한 양

아름다운 무지개가 비친듯 교운 색깔의 아동양말에는 동시에 맞게 만화영화들에서 나오는 너구리, 곰, 야옹이, 곰돌이를 비롯해서 《키티》와 《뽀》도 새겨져있다. 특히 체육인들을 위한 양

공정에서는 피부의 기능과 영양을 높여주고 살균작용과 함께 유해가스, 자외선으로부터의 보호작용을 하는 명주양말, 나노온화양말, 참대섬유양말을 비롯한 기능성양말을 개발생산하고있는데 이 양말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주문생산이 늘어나고있다. 공장에서는 양말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와 세계적추세를 제품들에 반영하여 인민들이 사랑하는 명제품, 명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철

내가 조선대학교를 졸업하고 낫설은 군마당에서 교편을 잡은지 웅근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학생들이 나의 가슴에 《선생님》 칭호를 달아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10년세월 교육자로서 몇몇이 살아갈수 있는것은 이곳 동료들의 《손맛》 덕택이라고 말할수 있다. 동료불고기가게에 초대하여 맛있는 음식도 먹어주고 왼쪽을 갈때면 진수선한 압박도 해주곤 하였으니 동료들의 그 《민음의 손맛》들에 떠받들려 부끄럽지 않은 조선학교 교원으로서 크게 성장할수 있었던것이다. 뿐만아니라 같은 동네에 사는 동료들이 반죽개까지 수고가 많으며 반찬을 들고 집까지 찾아와 줄 때도 있었고 어떤 동포 어머니는 로리만드는 법도 배워주었으니 솜씨가 서툴다고 로리를 멀리하던 내 가슴에도 불이 일어 부여에 서는 일이 많아졌다. 그 덕분에 우리 민족음식을 할줄 아는 조선녀성으로, 소년단원들 못지않게 《향상준비》 할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돌이켜보니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또 하나의 《손

엔제인가 대학신문에는 《박사할머니,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의 절박한 미담소개기가 실린적이 있었다. 발복계 퇴근길에 올랐던 리영은실장이 지하철도역 앞에서 울고있는 네살짜리 처녀를 불안고 속을 태우며 부모를 찾아준 내용이었다. 《야, 집이 어디냐?》 《몰라요.》 《아버지, 어머니 어디 갔니?》 《몰라요.》 사람들이 봄비는 속에서 함께 가던 아버지를 놓쳐버린 처녀에, 뒤늦게야 얼굴이 온통 땀투성이가 되어 허겁지겁 달려온 아버지, 서로 찾아다니느라 피그나지친 이들은 인정 많고 고마운 할머니에게 거듭거듭 인사를 하였고 처녀에게는 간식봉지를 품에 안은채 오래도록 손을 흔들었다. 《민약 그들이 녀성의학자 리영은선생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커다란 존경심을 담아 《박사할머니,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했을 것이다. 그의 박사논문은 《바다진주》의 출현과 더불어 훌륭히 완성되었다. 50여종의 영양성분과 약성분들이 함유된 다시마에서 결합시알산과 관련된 여러가지 효소들이 신기한 중합반응을 일으켜 효능높은 약품

## 실화 조국에 드리는 녀의학자의 노래 (2)

— 평양의학대학 림상연구소 리영은실장 —

들이 연방 태어난것이다. 다시마썩락악, 다시마깨양말악, 다시마복개양산, 다시마차, 다시마등근알약 등 10여가지의 약물은 어느 것이나 할것없이 녀성의학자의 반생의 심흔이 바쳐진 고심어린 창조였고 희열이었으며 인생의 보람이었다. 하지만 연구결과가 빛을 보기 전까지 남다른 우여곡절을 겪어야 하였다. 축적한 분석자료를 한창한 장 썰치며 번민도 많이 하

고 논문도 삼켜야 했던 나날들은 동서해의 수천리로정우에 새겨진 무수한 자욱마다에 잊지 못할 사연들과 함께 수놓아져있었다. 머나먼 출장길에서 부지런히 채집한 시기별, 품종별 다시마들을 가지고 실험으로 낮과 밤을 보냈지만 인제 한번 힘든 내색을 하지 않은것이다. 그를 힘겨울게 한것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 연구과제수행에 드는 원료와 자체, 실험

기구들뿐이 아니었다. 제기되는 난관들중에는 그의 연구사업에 힘을 주지 못할정 다른 나라들의 최신연구자료들을 열거하며 현실적의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일부 사람들의 그릇된 처사도 있었다. 이 부문에서 제노라 하던 그들과 오래동안 학술적론쟁도 하여보았지만 이들은 실험자료들을 들추면서 한사코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

《영은선생의 얼굴색이 좋지 않구만.》 하는 소리가 머리를 울려오자 그는 잠깐 놀라 일어섰다. 《저...》 서두를 댔으나 무슨 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였서는 리영은을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던 병원책임군은 물의자에 그를 앉혔었다. 《나도 방금 이야기들 들었소. 영은선생, 신심을 잃지 마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수평남에게 미역과 다시마를 가지고 인민들의 건강에 좋은 약들을 연구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두려울게 있었소. 이제라도 방향을 달리하십시오. 힘내요.》 리영은의 눈에 눈물이 왈칵 솟구쳐올랐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연구를 지지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있는데야 내 무엇을 주저하랴. 나의 열정 강그리 바쳐 기여한 인민들의 건강에 좋은 다시마양말들을 완성하리라. 그는 다시 연구사업에 뛰어들었다.

리영은은 구내공원의 소로길을 천천히 걸었다. 그가 겪고있는 심리적고충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새들이 제멋대로 무성히 꽃피우며

리영은은 구내공원의 소로길을 천천히 걸었다. 그가 겪고있는 심리적고충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새들이 제멋대로 무성히 꽃피우며

리영은은 구내공원의 소로길을 천천히 걸었다. 그가 겪고있는 심리적고충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새들이 제멋대로 무성히 꽃피우며

리영은은 구내공원의 소로길을 천천히 걸었다. 그가 겪고있는 심리적고충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새들이 제멋대로 무성히 꽃피우며



리영은실장(오른쪽)과 그가 개발한 약품들의 일부



모란봉을 감돌아 흐르는 대동강

원시 동굴 유적을 새로 발굴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의 연구집단이 평양시 강동군 향무리에서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의 문화층이 차례로 겹놓인 원시동굴 유적을 새로 발굴하였다.

또한 신석기시대 문화층에서 나온 유물을 통해 조선옛 류형사람이 대동강유역에서 발굴된 승리산사람(영안남도 덕천시 승리산유적)과 룡곡사람(황해북도 상원군 룡곡제1호동굴유적)과 같이 구석기시대의 신인이 그 뿌리를 두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

이로써 우리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이 묻혀있는 강동일대가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뿐 아니라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태를 묻고 살아온 유구한 고장이며 현대조선사람의 뿌리가 내린 지역의 하나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해명되었다.

평양시 강동군 향무리 자연동굴유적은 당시 사람들의 사회관계와 생산활동, 우리 민족의 기원을 보다 풍부한 자료들로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서 자못 의의가 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회와 생산활동, 우리 민족의 기원을 보다 풍부한 자료들로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서 자못 의의가 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회와 생산활동, 우리 민족의 기원을 보다 풍부한 자료들로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서 자못 의의가 크다.

원시 동굴 유적을 새로 발굴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의 연구집단이 평양시 강동군 향무리에서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의 문화층이 차례로 겹놓인 원시동굴 유적을 새로 발굴하였다.

또한 신석기시대 문화층에서 나온 유물을 통해 조선옛 류형사람이 대동강유역에서 발굴된 승리산사람(영안남도 덕천시 승리산유적)과 룡곡사람(황해북도 상원군 룡곡제1호동굴유적)과 같이 구석기시대의 신인이 그 뿌리를 두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

이로써 우리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이 묻혀있는 강동일대가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뿐 아니라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태를 묻고 살아온 유구한 고장이며 현대조선사람의 뿌리가 내린 지역의 하나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해명되었다.

평양시 강동군 향무리 자연동굴유적은 당시 사람들의 사회관계와 생산활동, 우리 민족의 기원을 보다 풍부한 자료들로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서 자못 의의가 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회와 생산활동, 우리 민족의 기원을 보다 풍부한 자료들로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서 자못 의의가 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회와 생산활동, 우리 민족의 기원을 보다 풍부한 자료들로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서 자못 의의가 크다.

저작권과 사회문화발전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저작자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문학예술작품창작을 전문으로 하는 창작가들을 머리에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동무들이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찍는 사진이라든가 일기나 증후기 같은 것은 물론 유치원어린이가 그린 그림도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결국 성별과 나이,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저작자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소설, 음악, 극대본을 창작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목소리와 물음, 말, 행동 등을 통한 연기형상으로 대중이 실지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가수, 무용수, 영화배우 등은 물론 외국소설이나 영화대사를 번역한 사람들도 저작권법으로 인정해준다. 지어 배우의 노래와 춤 등을 녹음, 녹화한 자기레프, CD를 제작하거나 유선 및 무선통신망을 통하여 방송해주는 사람까지도 저작권법으로 되며 해당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저작물이란 문학, 예술, 과학, 교육 등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창작되는 작품을 가리키는 말이다.

저작물에는 그 표현형식에 따라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사진저작물, 도형저작물 등이 속한다. 지식경제시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소프트웨어, 전자자료기, 다매체 편집물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적 및 인격적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은 본질에 있어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저작물의 리용방법에는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방송 등이 포함된다.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의 이러한 리용을 금지시키거나 반대로 어떤 조건을 준수하면서 리용하도록 허가해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리용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창작된

때부터 그 저작권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을 통한 인격적 리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은 그 내용에 따라 자기의 저작물을 공개하였는가를 말했는가를 결정하는 발표권, 저작물에 자기의 이름을 표시하였는가를 말했는가를 결정하는 성명 표시권 그리고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목을 남들이 고치지 못하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재산권과 달리 저작인격권은 상속되거나 양도될 수 없으며 저작권자의 사망후에도 계속 보호된다.

가치있는 지적창조물을 집필, 창작한 저작자의 합법적 리익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창작된 저작물들의 원활한 리용을 통하여 사회적진보와 문화발전의 후추를 돌려주는 것이 저작권보호제도의 근본 리익이다.

본사기자

대동강송어국

공화국의 비물질문화유산들 가운데는 대동강송어국이 있다.

이 음식은 대동강의 송어로 끓인 평양의 유명한 특산 음식이다.

송어는 평양 대동강송어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평양사람들은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평양의 명물로 자랑하는 송어국을 대접하는 것을 좋아한다. 대동강 송어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송어국을 맛보아야 손님대접을 후하게 받은 것으로 여기었다.

예로부터 송어는 입맛을 돋우고 몸을 좋게 하는 보신

제로 일러왔다.

송어에는 필수아미노산들이 풍부한 질 좋은 단백질외에도 지방, 비리민, 광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어 위의 기능을 높여주고 5장을 보하며 원기를 돋우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며 눈을 밝게 하는 작용이 있다.

또한 입맛이 없을 때, 만성위염, 야맹증, 앓고난 뒤, 빈혈 때 먹으면 몸상태가 좋아진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송어 한마리와 파, 생강, 마늘, 소금, 간장, 통후추를 준비한다.

송어는 비늘을 긁어내고 내장을 꺼낸 다음 4cm정도로 토막낸다.

남비에 찬물과 송어를 안치고 후추알을 약천에 써서

냉고 같이 끓인다. 떠오르는 거품을 걷어낸다.

송어토막이 익고 국물에 누런 기름이 뜨면 후추알을 쌀 약천을 꺼내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 다음 송어토막과 국물을 담아낸다.

다진 마늘과 생강을 곁들여낸다.

본사기자



대동강송어국

6. 첫물뜯기

첫물뜯기에는 유익한 유기산과 섬유소, 펙틴, 알카로이드, 카로틴, 비타민 B, C, 철, 칼슘, 코발트, 린, 망간이 들어 있다.

뜯기는 빈혈증과 분류성동맥경화증, 당뇨병, 생식기질병, 위염, 대장염, 천식, 물집대상양의 치료에 쓰인다.

7. 칠색송어

칠색송어에는 유용물질과 미량원소 그리고 비타민 A와 B, E, D, PP, 셀렌, 린, 엷산, 리진, 나트륨, 칼륨, 칼슘이 들어 있다.

의사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화하고 신경계 통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칠색송어를 먹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칠색송어 살은 심장혈관질병과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칠색송어에 들어있는 물질들은 암을 예방하고 불면증을 치료하며 로화과정을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8. 붕어

붕어는 많은 량의 비타민 A와 B, C, D, E, 요드, 망간, 동, 아연, 크롬, 몰리브덴 그리고 흡수성이 잘 되는 단백을 함유한 값이 낮은 식품들 중의 하나이다.

자료에 의하면 어릴 때부터 붕어를 자주 먹은 어린이들은 지능이 높고 시력도 좋다고 한다.

본사기자

5월에 좋은 건강식품 (2)

닭고기를 정성껏 먹으면 심장혈관 및 소화기, 신경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0. 박하

박하는 혈관확장 및 진통, 안정, 항염증작용을 한다. 소화기능장애와 부인병 및 천식, 염주치로에 박하를 쓴다. 박하차는 강장작용을 하여 심장기능을 개선하고 열병 및 감기치료에도움을 증진시키나 화상 및 딸꾹질, 머리아픔, 메스꺼움, 멀미를 치료하는데도 좋다.

본사기자

사화

우연한 기적 (1)

글 권영희, 그림 채대성

김진사는 그동안 몇해째 자신의 혼담이 이상한 소문으로 해서 뒷말만 듣다 못해 되지도 않으니 《이제는 아마도 내 대에 결혼(자신의 대가 끊어지는 것)이 되나보다.》 하고 한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던 수일이 어떤 뜻밖에도 한달이 되어 잔치날까지 받아놓았다. 이제는 너무 기뻐 춤이라도 출 것 같고 또 잔치준비를 한다고 안팎으로 들뜬다. 돌아와서 보니 웬 일인지 그는 요즈음 방안에 꼭 들어박혀 밖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김진사는 친석군이 말을 들어오나 친석은 채 못되고 수백씩은 실히 되는지라 대

를 이을 아들의 병치료에 돈을 아끼지는 않았다.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아도 점점 더해지니 그는 아주 자리에 누워 버렸다.

아무리 보아도 아들의 병은 심상치 않았다. 그동안 술한 의원을 데려다 보였는데 보고나면 의례히 《나는 아직 의술이 미숙해서 무슨 병인지 모르겠군...》 하고 돌아갔다.

김진사는 아들의 병이 심상치 않은 병인줄 모르지는 않았다. 되여가는 것이 꼭 천형병(문동병) 같았다. 그러나 나 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설마 내 아이가 그런 못된 병에야...》 하고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곤 하였다.

하루는 먼 곳에서 용하다는 의원을 청해왔다.

의원이 아들 병환의 병을 보고 나았기 바쁘게 《의원 어른!》 하고 존대스럽게 불렀다. 여느때 같으면 진사쯤 되는 그가 의원에 깎듯이 존대했기 없었겠지.

《어떻습니까. 무슨 병인가요. 고칠 수 있겠지요?》

의원은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에 누워있는 병환의 얼굴을 한동안 지켜보다가 자기가 가지고 온 꾸레미속에서 보풀이 인책 한권을 꺼내들었다. 그는 펄럭펄럭 책장을 번지더니 한곳에 눈길을 멈추고 읽어내려갔다.

김진사는 의원의 동무로 가서 그가 읽어내려가는 데

목에 눈을 주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대동강 혹은 천형병이라고도 한다. 대동강은 사백배가 지나 된다.

이 병은 총(군)에 의해 생기며 총이 간을 침범하면 눈섭이 빠지고 폐에 침범하면 코가 내려앉고 비강을 침범하면 음식이 갈리며 신장을 침범하면 귀에서 소리가 나고 살이 쫄쫄해지고 무감각하며 얼굴에 발달 혹은 대추씨만같은 형태가 무수히 나니 보기 매우 흉하니라.

여기까지 읽어내려가는 동안 김진사는 몇번이나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림 역시 병환의 병은 문동병이었다 말인가...)

김진사는 풀이 죽어 의원에게 예원하듯 말했다.

《의원 어른, 저자식이 죽으면 우리 집은 대가 끊어지고 마요. 어떻게든 꼭 좀 살려주세요. 저 얼굴의 형태라도 좀 없애주세요.》

의원은 잠시 생각을 잠겨 있다가 입을 열었다.

《더러 낫기도 한대라고 씌어있으니 어디 약을 써보십시오.》

그는 곧 약방문을 써내려갔다.

의원은 붓을 놓고 다 쓴 약방문을 김진사에게 주며 《여하든 몇번 써보십시오.》 하고 말하고는 난처한 듯이 잠깐 서성거리다가 돌

아갔다.

김진사는 의원의 말이 애매하고 약방문도 믿음이 가지 않았으나 자기가 직접 약을 구하여 손수 환을 지었으며 그렇게 만든 약을 정성껏 먹이곤 하였다.

그러나 아들의 병은 조금도 낫지 않고 점점 더해만 갔다. 아들의 병을 고치고 장가들어 절친을 면하자던 김진사의 생각이 이제는 거의 절망적이었다.

김진사는 이 혼돈을 받고



과 혼인을 하면 잔치에 드는 비용은 이편에서 다 담당할 것이고 또 처녀집이 가난하면 땅마지기도 마련하여주어 살게 해주겠다는 것을 알리기도 하였다. (물론 아들의 병은 말하지 않고 하곤.)

처녀의 집에서는 신랑집이 집안도 괜찮고 또 친석군이 라는 말에 혹해서 잘 알아보지도 않고 딸을 주기로 하였다.

김진사는 이 혼돈을 받고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하며 곧 사주단자를 보내면서 처녀집식구들의 환심을 사느라고 작지 않은 돈과 천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이러하여 서로 선을 보는 일도 없이 잔치날을 정해버렸다. 김진사는 다시 연기가 어려운 절호의 기회를 놓칠까봐 벌벌 떨었다.

그는 어물어물하다가 신부 집에 아들의 소문이 들어가서 혼사가 또 틀어지거나 하면 어쩌랴 싶어 부랴부랴 서둘러 혼인날까지 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잔치날을 받아놓은 날부터 아들 병환은 병이 더하여 아주 자리치고 누워 버렸다. 여느 병 같으면 얼음도 얼음으로 심체를 할 수도 있고 정 심하면 낫자를 미룰 수도 있었지만 병환의 경우는 그럴 수도 없었다. 김진사는 너무도 애가 타서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며 탄식하였다.

《하늘도 무심하지.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잔치날은 박했었는데...》

그러하여 김진사는 혼인날을 닷새 앞두고 방에 들어앉아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남에게 초췌한 얼굴을 보이고 싶지도 않은 김진사는 조용히 들어앉아 무슨 좋은 방도를 생각해내려 하였다.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잔치를 치를 수는 없을까?》

그러나 그 무슨 기적이라도 일어나주기 전에야 그런 요술에 가까운 방도가 있을 리 없었다.

날자는 빨리도 흘러 또 이들이 지나니 잔치날이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대사를 사흘 앞둔 날 아침에 김진사는 뜻밖의 방문객을 맞았으니 그는 바로 하만장의 아들이었다. 면장 하상기와는 친분이 있어 자주 래왕이 있으나 그의 아들이 찾아오는 일은 별로 없던 일이었다.

《진사어른, 안녕하십니까?》 하는 하상기 아들의 인사를 받은 김진사는 좀 피이쩍게 생각하며 돌아서서 있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때 네가 어떻게 왔느냐? 어서 이리 들어오느냐?》

《의유록설》과 《봉산탈춤》

봉산탈춤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봉산지방에서 전해오는 《의유록설》이다.

비밀한 음모로 고려왕조를 뒤엎고 왕권을 탈취한 이성계 일파를 반대하여 세상을 등지고 두문외교에 들어간 72명의 고려충신들은 복잡한 나라의 정치정세를 안정시키고 온갖 악한 무리들을 몰아내려는 목적으로 《요사스러운 것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것을 맞이한다.》는 뜻이 담긴 탈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탈을 가지고 나라의 방방곡곡을 다니며 《귀신몰이》를 하려고 계획하였다. 고려충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한 사람이 탈을 가지고 《귀신몰이》를 하면서 비밀리에 전국을 순회하게 되었는데 남쪽지방을 전부 돌고 북쪽으로 올라가던 도중 봉산에 들리게 되었다.

당시 봉산군수로 있던 리유록과 매우 가까운 사이었던 그는 대화과정에 자기가 하고있는 《귀신몰이》의 내막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었다.

이 말을 들은 봉산군수는 지금 나라의 정세가 복잡할데 그런 일을 하다가는 목숨이 위태롭다고 하면서 탈을 자기에게 맡겨두고 빨리 돌아가라고 권고하였다. 잠시 생각하고나 그는 군수의 권고대로 탈을 맡기고 떠나갔다.

고려를 망하게 한 이성계 일파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 있던 봉산군수는 그 탈을 소중히 간사해두었다가 나라의 정세가 점차 안정되자 봉산관가의 아전들에게 탈을 가지고 탈놀이를 벌리게 하였다.

그때로부터 봉산지방에서 탈놀이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의유록설》을 통하여 봉산탈춤은 고려말, 조선봉건왕조 초기의 역사적동맥으로서 유래된 이후 오랜 세월 전승되어오는 과정에 자기의 뚜렷한 면모를 갖추고 세상사람들이 다 아는 봉산탈춤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리영호

《말 못 탈》 녀석

한 량반이 생소한 시골 길에서 길을 잃었다. 그는 소름이 온몸에 걸려서 걸을 수가 없었다.

《애야,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야?》

《글쎄요, 나는 이 길은 어디로 가는지 한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늘 생여기에 있었으니까요.》

《음까지 가자면 얼마나 가야 하느냐?》

《글쎄요, 재분적이 없어요.》

부아가 난 량반은 아이를 질책하였다.

《그놈 정말 말 못할 녀석이로구나.》

《말을 못 타니까 이렇게 소름 타고 다니지요.》

말문이 막힌 량반은 하는 수없이 제갈길을 가버렸다.